

시론 **역사의곡과 일본의 미래**

벤벤스러운 역사외곡조가 일본을 또다시 어지럽히고있다.

최근 일본문화과학성은 교과서를 출판하는 기업체들이 제출한 《교과서내 표현 삭제 및 변경수정신청》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결과 중, 고등학교교과서 사용될 교과서들에서 《중군위안부》라는 부분이 삭제되거나 《위안부》로 변경되고 《강제연행》이라는 문구는 《징용》 또는 《동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역사적진실이 외곡된 이러한 교과서의 출판은 지난 4월 정부회의에서 《중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위안부)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게 적절하다. 《강제연행》였다고 표현하는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서를 공식 채택한 데 따른것이라고 한다.

당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휘위에 역사외곡이 굳어진 사회적구조로 되어가고있는 일본특유의 과립체성과 도덕적저열성, 퇴색안난 군국주의의 추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만행은 세계가 경악할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이다. 특히 일본군성노예범죄는 전대미문의 가장 포악하고 잔악하기 그지없는 반인륜범죄이다.

처녀들은 물론이고 가정부인과 10대의 어린 소녀들까지도 닳치는데로 끌려가 침략무리의 성노예로 삼은 야수의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역사에는 크고작은 침략행위들과 전쟁들이 수많은 기록되어있지만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20만명이나 되는 조선녀성들을 저들의

동물적욕망과 침략열기의 고치를 위해 전쟁터로 끌고다니며 통속한 야만들은 없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연행, 탐치하여 전제대포만으로 찢거나 죽음의 고역장에 내몰아 마소와 같이 부러먹으며 잔인하게 학살한 죄악은 또 어떠한가.

일제의 강제연행, 탐치범죄는 국가적범죄에 조 조직적으로 감행되고 그 규모와 수단, 방법에 있어서 증세기적인 《노예사냥》을 방불케 하는 야수적인 만행이었다.

몇개의 단어를 빼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어문책 덮어버리기에 너무도 엄중하고 파멸한 원한이 서린 반인륜, 반인권적인 죄악이고 라민족말살범죄이다.

아마 일본은 거짓말도 백번 하면 진실처럼 여기게 된다는 케번에 아직도 미련을 품고있는것 같다.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의 세계관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는가에 따라 옳은 길로 나갈수도 있고 나쁜 길로 나갈 수도 있다.

침략과 범죄의 역사, 그에 따른 파국적 후과와 교훈은 다 없애버리고 외곡된 역사와 극단적인 군국주의로 교육된 무지하고 기형적인 세 세대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일본에는 《장래생각을 하지 않는자 불행한 날을 면할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제침야망실현을 위해 미래의 주인공들을 자기들과 같은 반인륜, 반인권의 야수들로 키우려고 해담비는 군국주의광신자들은 이 속담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남조선정국이 다음기 《대통령》선거를 위한 여야양간, 후보들간의 경쟁으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교발사주》의혹사건이 터져 더욱 혼잡에 빠져들고있다고 한다.

문제의 《교발사주》의혹사건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검찰내의 자기 심복을 시켜 여당인사들에 대한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겨주면서 행사고발을 하도록 부추킨 사실을 어느 한 언론이 폭로하면서 터지게 된것이다.

언론은 윤석열의 심복이 당시 《미래통합당》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현 《국민의힘》 의원인 김웅에게 전달한 자료문건들도 공개하였다.

사실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검찰과(국민의힘)이 유착된 전형적인 윤석열계트(부정부패사건》로 라인하면서 《국민의힘》의 사퇴와 윤석열의 후보사퇴를 요구해나섰다.

그러나 범죄혐의자들인 윤석열과 까폐감도 안된다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평이다.

윤석열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방류금지, 《주 120시간노동제》실시주장, 어려운 사람은 부정식도품을 공급해도 일이라는 식의 발언을 비롯하여 내뱉는 소리를 전

남조선신문 《한국경제》는 《국민의힘》의 《대선》에비후보인 윤석열이 20, 30대 청년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다.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지지후보를 지지하지 않은채 표류하고있다고 하면서 청년세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 《정부》정서를 드러내고있지만 그렇다고 야권후보들을 지지하지 않고있다고 하였다.

제 대접 제가 받는다라는 속담과 대로인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국민의힘》에서 나선 《대선》에비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대보는커녕 서

과 야당인물에게 문건을 넘겨준 심복, 문건을 넘겨받은 김웅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거를 내놓으라.》,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뽀뽀하면서 지금의 순간을 모면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등장한 고미 깨진 사발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심복과 김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외부자로 정식 립건한것은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원타격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부패야당을 강타한 선거개입의혹사건

발장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됐고 당시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해 여당인사를 행사고받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하여 《교발사주》의혹사건이 진짜일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국민의힘》이 《공명선거추진단》을 내온다, 자체조사를 한다 하며 분주함을 피우고있지만 이

남조선언론들과 여론은 이번 에 또다시 터져나온 선거개입의혹사건은 권력야망실현을 위해 당인사를 행사고받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알려진것처럼 《국민의힘》과 그의 조상들은 역대 선거부정행위를 막렷 해왔다.

멀리로는 리승만의 3.15부정선거가 있고 가깝게는 선거쿠데타로 불리운 18대 《대선》 시기의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비롯하여 《국민의힘》의 조상들이 저지른 선거부정행위는 수두룩하다.

이러한 전적을 가진자들이 지난 해 《국회》의원선거에서 검찰과 작당하여 선거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것이 아니고 역시 짜리짜리에서는 짜리짜리에 나지 않는다는것을 더욱 실감하게 하는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으로 민심의 배척을 받게 될가봐 정권 궁궁하며 《야당숙이기》, 《정치탄압》이라고 고야대며 사건을 뒤집어보려 하지만 씩씩대로 씩씩고름이 러진것이다.

밖으로는 다른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내부에서도 도마뱀요리차르기로 윤석열의 후보사퇴와 출당 등 매장시키려는 압투가 치열해지고있어 《국민의힘》이 지금의 엄청난 정치지진을 꽤 견디어내겠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가지 명백한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은 《공정》과 《정의》가 사기협잡, 부정부패와 일맥상통한다는것이다.

자은혜

남조선언론이 대미굴종행위를 비난

남조선에서 미국의 내정간섭과 당국의 대미굴종을 비판하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일마전 남조선언론 《민불라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인

것은 정부나 여야정당 할것없이 지구촌정세의 근본적변화를 거의 무감각하게 바라만 보고있다는 점이다. 그저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이 하라는데로 하는데 길들여져 다른 생각을 못하니 풀려만 가고있다.

현재의 엄청난 한반도긴장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그러면서 언론은 내외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바람에 정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본사기자 한 일 력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남조선신문 《한국경제》는 《국민의힘》의 《대선》에비후보인 윤석열이 20, 30대 청년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다.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지지후보를 지지하지 않은채 표류하고있다고 하면서 청년세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 《정부》정서를 드러내고있지만 그렇다고 야권후보들을 지지하지 않고있다고 하였다.

제 대접 제가 받는다라는 속담과 대로인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국민의힘》에서 나선 《대선》에비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대보는커녕 서

응당한 대접

탕 초보적인 사회정치효용도 인식하지 못한 무지와 망인의 편승인것으로 하여 《무지몽매한 윤석열》, 《사람잡는 후보》라고 비난을 받는다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기조차 두렵다》

최근 남조선에서 군내부의 심각한 부패상을 폭로한 TV극이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한다.

TV극은 특근형병대신하영병제포진담조성원들이 구내원들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폭력행위와 가혹행위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신대원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남조선군에 만연되어있는 기강헤이와 폭력행위, 부패상을 그대로 폭로하고있다.

남조선 해당 인터넷언론이 평한것처럼 현재 TV극이 시청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는것은 그 어떤 특이한 주

제나 특출한 배우의 예술적 형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남조선군에 심각한 악영향을 은폐되어있던 어두운 현실을 사실그대로 보여주기에만인하는것이다.

윤일 병 폭행 사망 사건, 임병장총기탄사건 등 대형사건들이 쉼이 없이 터져나온 2014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TV극에서 신병이 코를 찡자나 이유로 방독면을 쓰우고 물고문을 들이대거나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실신할 정도로 구타하는 장면, 각종 방범 등 폭력행위 하는 장면 등 폭력행위 장면들은 남조선군내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극단적이고

총격적인 사건들을 취급한것이 지금도 하나의 풍조로 만연된것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 남조선군내에서는 신병과 하급이사에 대한 구내원과 상급의 폭력행위와 가혹행위, 성폭력이 일상사로 되고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및 자살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있다.

올해에만도 공군녀성부사관성추행사건, 해군녀성중사성추행사건 등 성폭력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남조선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각종 폭력행위에 시달리다 못해 국단적신력을 한 군내 자살자는 전체 사망자의 76%에 달

하는 등 그 비유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불과 열흘전에도 집단따돌림과 구타, 폭언에 시달린 해군의 일병이 휴가중 자살이라는 극단적행위를 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하기에 TV극을 본 남조선주민들은 극을 보는 전기간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하였으며 정신장세가 울것 같았다.

지금의 현실과 다른것이 하나도 없다. 실제 군내에서 실시간 감시촬영기를 달고 촬영한것 같다.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기조차 두렵다고 하는 등 그 비유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불과 열흘전에도 집단따돌림과 구타, 폭언에 시달린 해군의 일병이 휴가중 자살이라는 극단적행위를 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하기에 TV극을 본 남조선주민들은 극을 보는 전기간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하였으며 정신장세가 울것 같았다.

지금의 현실과 다른것이 하나도 없다. 실제 군내에서 실시간 감시촬영기를 달고 촬영한것 같다.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기조차 두렵다고 하는 등 그 비유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본사기자 안권 일



물가는 오르고 민생은 힘들고

남조선에서 정계라는 올라 리안에서 권력다툼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을 때 사회에서는 도란에 빠진 민생으로 인민들의 고달픈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날을 따라 상승하고있는 물가와 천근만근으로 내려누르는 가계부채 등으로 하여 말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남조선방송 《KBS》가 9월 2일에 전한데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두달 연속 전년 동기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언론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전년보다 2.6% 올랐고 소비자물가상

승률은 2월 1%를 넘어선 뒤 계속 상승하다가 7월과 8월 두달 연속 전년동기수치인 2.6%를 기록했으며 특히 농축산물과 수산물에 폭풍 등의 영향으로 7.8%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전하였다.

9월 6일 남조선 방송 《CBS》는 지난 7월기준 식료품물가상승률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서 4번째로 높고 평균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보도하였다.

이런 속에 일마전 《한국은행》이 작성전염병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대응으로 2020년 5월 0.5%로 내렸던 은행금리를 0.75%로 올린다

고 발표한 소식은 주민들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

작성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남조선에서는 대다수의 가정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빚을 내면서 가계부채총액이 1조 7,000억US\$에 달하였다고 한다.

자영업자들만 보아도 부채가 1년새 132조원로 불어났다고 한다.

그러 하여 극단적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막대한 길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달픈 호소를 한다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광 령

마프가니스탄철수가 시사하는 몇가지...

지난 8월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였다.

철수인가, 패주인가

2001년 9.11사건이후 《반테러전》의 명목으로 침공하였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지난 20년동안 2조US\$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10여만명 이상의 병력과 첨단군사장비를 동원하였지만 10년만에 빈 라덴을 겨우 사살하였을뿐 미군 2,450여명, 미국민 3,850명이 죽어가고 2만 700여명의 미군 부상당한 등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고 한다.

20년전 좋아했던 탈리반세력의 재집권을 눈여 쾄고 끄고 막지 못했으며 890억US\$를 들여 아프가니스탄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은 무장시력 탈리반을 무장시켜 주는 꼴이 되었다고 한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미군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민수를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삼시간에 전세계에 확산되었다.

그것은 또한 손아래 《동맹국》들에게 불안한 그들로 덜 쳐들었다.

특히 보호자 없는 한시도

《세계계강》을 자랑하던 미군이 도망치듯 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동맹관》이 일반적으로 동맹국들을 보호하던 전통적인것에서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맹관》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하기도 하면서 남조선이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에 갇혀서 관여

않았는지 하고 떠오르는 가지가지의 억측들로 하여 불안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이 이번 철수과정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떠들었지만 자국내와 국제사회에서는 미군력사상 엄청난 실패이다. 미국이 국제현안을 책임지던 시대는 막을 내렸으며 미국에는 더이상 그럴만 한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잘못된 전쟁이라는 혹평만 쏟아졌다.

미국이 이번 철수과정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떠들었지만 자국내와 국제사회에서는 미군력사상 엄청난 실패이다. 미국이 국제현안을 책임지던 시대는 막을 내렸으며 미국에는 더이상 그럴만 한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잘못된 전쟁이라는 혹평만 쏟아졌다.

미국이 이번 철수과정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떠들었지만 자국내와 국제사회에서는 미군력사상 엄청난 실패이다. 미국이 국제현안을 책임지던 시대는 막을 내렸으며 미국에는 더이상 그럴만 한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잘못된 전쟁이라는 혹평만 쏟아졌다.

미국이 이번 철수과정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떠들었지만 자국내와 국제사회에서는 미군력사상 엄청난 실패이다. 미국이 국제현안을 책임지던 시대는 막을 내렸으며 미국에는 더이상 그럴만 한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잘못된 전쟁이라는 혹평만 쏟아졌다.

미국이 이번 철수과정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떠들었지만 자국내와 국제사회에서는 미군력사상 엄청난 실패이다. 미국이 국제현안을 책임지던 시대는 막을 내렸으며 미국에는 더이상 그럴만 한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잘못된 전쟁이라는 혹평만 쏟아졌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경제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